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무언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하여, 아니면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나 아니면 눈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이 교회에 나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지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지을 것을 생각하고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야 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의 성품을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분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실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고 감당 하실 만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22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더 고통 가운데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는 악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죄 짐을 지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와 함께 하실 수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고통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실 수 없고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22:7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22:6-8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22:18절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형통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신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을 닮아 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곧 우리의 기쁨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